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달리고 달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 · 편집인 : 박 동 열
발행처 : 경남중고동창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 : (051) 245-7551 ~ 3. FAX : 245-7550
홈페이지 : www.kyungnam.or.kr
인쇄처 : (주) 쿤당인쇄 (051) 636-9477
재경동창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북빌딩 504호
Tel : (02) 783-0071 ~ 2. FAX : (02) 783-0073

제11회
용마대상
을 받은
박종구
재경고문



본부동창회 제40차 정기총회 성황 “모교60년사 편찬에 적극 동참”

박종구 재경고문(5회) · 용마장학회 이사(이사)이 지난 3월28일 열린 본부동창회 제40차 정기총회에서 우리 동창회 최고상인 제11회 용마대상을 수상했다. 박 고문은 최근 고려대 교우회장에 선출돼 영예가 걸쳤다.

박종구 재경고문 제11회 용마대상 수상

하영수 김종원 김형수 윤영식
이훈민 김성수 김성환
최낙준 최승호 김재일 공로패
결산보고 · 예산안 승인

박동열 본부회장(8회 · 해운대성심병원장)은 이날 오후 7시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도호텔 총무홀에서 400여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부 정기총회(사진)를 주재. 지난 반세기 동안 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본부 · 재경 두 장학회에 모두 6억5천만 원의 기금을 쾌척한 박종구 재경고문에게 제11회 용마대상을 수여(박 고문 해외 출장으로 이희문(6회) 전 경남고 교장이 대신 수상)했다.

박 회장은 이어 하영수(10회 · 마창회 고문) · 김종원(12회 · 대구회 고문) · 김형수(14회 · 울산회 고문) · 김성수(21회 · 대전회 수석부회장)에게 지역회 발전 공로패를, 윤영식-이훈민(이상 16회) · 김성환-최낙준(이상 26회) · 최승호-김재일(이상 36회)에게 흠크밍 행사 유공 공로패를 각각 수여했다.

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정기총회는 현 집행부가 중간평가를 받는 날로, 동문 여러분의 준엄한 지적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이를 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한 활력소로 삼겠다”며 “모교60년사 편찬을 위해 각종 사진 등 자료들을 제공하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정행권 수석부회장(9회 · 부산가스개발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막을 올린

정기총회는 국민의례 교가제창 동문소개 유공자표창이 있었고, 이어 회장 인사 · 권오현(1회) 고문 격려사 · 김경희 재경고문(9회) 축사 · 김근준(1회) 송두호 고문(3회)과 김향운 경남고 교장(13회)의 제의에 따른 축배 · 의안 심의 · 감사보고 등 순으로 진행됐다(사회-김형석 홍보이사 · 16회).

특히 총회는 주요의안 심의에서 같은 달 3월14일 열린 본부 올해 첫 이사회가 심의해 상정한 2002년 본부 결산보고(1억7천750만원 규모)와 2003년 본부 예산안(1억8천750만원 규모) 등을 승인했다.

참석 동문들은 정담 속에 우정의 술잔을 나누다가 오후 9시경 헤어졌다.

(2면에 관련기사 넘김)



본부 포상위원회, 용마대상 · 공로패 후보 심사

지난 3월19일 정오 부산 동구 범일동 대어에서 열린 본부 포상위원회는 △제11회 용마대상 △지역발전 및 흠크밍행사 유공 공로패 수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 심사 회의를 열었다.

박동열 위원장(8회 · 본부 회장)을 비롯, 정행권(9회 · 본부 수석부회장) 한동대(9회) 강진평 오강욱(이상 10회) 안강태(11회) 왕한균 위원(12회)

회 · 이상 본부 부회장) 등은 먼저 제11회 용마대상 후보인 박종구 재경 고문(5회)에 대한 공적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주)삼구 회장 박 고문이 △본부 부회장-용마장학회 이사, 재경 부회장-회장-고문-장학회장 등을 맡아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50년 동안 헌신했고 △본부 용마장학회 설립시 기금 5천만 원을 출연

했으며 △최근에 본부 · 재경장학회에 각각 3억 원의 기금을 쾌척하는 등 일련의 공적이 뛰어나다고 평가,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지역회 발전과 흠크밍 행사 유공 공로패 후보자 심사를 했다. 지역회 발전 유공자 후보 심사에서는 하영수(10회 · 마창회 고문-지역회 창립 참여 · 가족동반 각종 행사 도입 등 유공) · 김종원(12회 · 대구회 고문-동창회 발전기금 조성사업 등 유공) · 김형수(14회 · 울산회 고

문 동창회관 마련 등 유공) · 김성수(21회 · 대전회 수석부회장-지역회 창립 참여 · 조직 활성화 등 유공) 등 4명을 선정했다.

또 흠크밍데이행사 성공적 개최를 위해 크게 기여한 공로패 후보 심사에서는 윤영식-이훈민(이상 16회 부산 · 재경 회장-졸업 40주년 기념) · 김성환-최낙준(26회 부산 · 재경 회장-졸업 30주년 기념) · 최승호-김재일(이상 36회 부산 · 재경 회장-졸업 20주년 기념) 등 6명을 선정했다.

제 8회동기회 임원명단

본부동창회

회장 박동열
이사 문국장혁표

동기회

고문
김정곤 공상태 노선태
박동열 이윤조 이춘기
장혁표

회장 김봉길

수석부회장 문국

부회장
안종열 이상목 이태호

감사 강성도 안병권

총무 도은영

재무 최윤식

이사

구본섭	김기혁	김문각
김상곤	김시경	김을환(감만)
김일곤	김재범	목용성
문동현	박세창	박소현
박영우	배기현	배덕수
백옥현	서석동	설태규
성해원	신경화	심재우
심재홍	엄덕량	우동천
이동근(보수)	이동근(망미)	
이병재	이성호	이장성
이창우	이희옥	이호원

임금식 임을수 장길영

장희준 정금출 정인호
조봉석 조성래 조대준
최경태 최낙병 최해군

재경동기회

회장 강성태
산우회 회장 김영철
잔디회 회장 배주원
팔선회 회장 이유환

우리나라 최초의 난(蘭)동호인 모임인 소심회(素心會)에 입회한 지 30년 가까이 된다.

서울대병원의 인턴시절에 거의 60~70 대인 노선배님들 틈에 끼여 난 기르기를 배웠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를 통해 '난 세계는 우리 용마사회와 많이 닮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끈질긴 생명력·유유상종성·도전력·인내 끝의 훌륭한 작품 창출 등이 그것이다.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울산에서 개원한 후 '울산난우회'란 동호회 창립(1985년)에 산파역과 초대총무를 맡았다. 이때부터 많은 용마가족과 친교를 넓혀 나갔고 끈끈한 정과 응집력, 화합 등을 쌓아나갔다. 귀중한 체험으로 받아들여졌다. 동기생 중에 부산의 조광도와 서울의 김영국 동문과는 난으로 인하여 더 한층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식물학적으로 쌍자엽식물 중엔 국화가, 단자엽식물 중에선 난이 가장 진화된 식물이라고 한다. 동물군에서 가장 진화된 우리 인간이 고급식물인 난에 이끌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유유상종'일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연약하

시평

박동건

제25회 · 울산회 부회장 · 정신신경과 전문의



난 기르기와 용마 정 나누기

고 까다로우면서도, 악조건 아래서는 대단히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도 난과 인간의 공통점일 것이다. 난은 물 한 방울 없이도 한 달 이상 생명력을 이어가는 강한 식물이지만, 훌륭한 작품으로 키워내려면 많은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엄청나게 많은 품종이 개발되어 있어서 소유욕이나 도전의식에 불을 당기는 마력 또한 대단하다.

나는 정신과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살아 있는 생물을 키워보라고 권유를 많이 하는 편이다. 생명체를 보살펴주고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삶의 보람이 되고, 자신의 존재감을 뿌듯이 느

낄 수 있는 인간성 회복의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통해 우리 동창회에서의 동문과 동문 사이, 가족과 가족 사이에 흐르는 끈끈한 정을 상기하며 생활한다. 그래서 동창회 모임이라면 가슴을 설레이며 참석하고 용마가족이라면 나부터 마음을 활짝 열어 정 나누기를 한다. 우정의 참뜻을 새삼 느낀다. 난에 물 주듯

이 우정을 들팔 주려고 노력한다.

봄이 끝날 무렵, 화분 위로 맑은 연녹색의 새 죽이 올라올 때의 회열, 여름이 지나가면서 꽃대가 올라올 때의 기대감, 몇 달의 기다림과 보살핌 끝에 이른 봄

꽃봉오리에 살이 오르고 제색을 발현시켜서, 피어나는 춘란의 꽃에서 황홀한 보람을 찾을 수 있다. 각계각층에서 동문들이 새롭게 영진했다는 소식을 동창회보 등을 통해 접했을 때의 회열과 기대감, 다른 사람에게도 널리 자랑하고 싶은 충동감으로 보람을 느낀다. 이럴 때 일수록 잘해야 한다는 걱정도 생긴다.

이렇게 자연의 섭리를 따르며 천천히 이루어가는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기다림의 미학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농사짓는 배양의 기쁨뿐 아니라 연륜이 쌓이면 선별과 감상의 안목도 길러지고 전시와 연출을 통한 예술적 감흥까지도 곁들일 수 있는 경지가 열려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안성맞춤인 이 취미를 용마 동문들께 권해드리고 싶고 이미 같은 취미에 빠져 있거나 관심이 많은 동문들과 교류를 나누고 싶다.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길을 찾을 수 있고 동문·가족들 간의 정 나누기 실습을 알차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I면 본부 정기총회에서 받음

한편 유공자 표창에 앞서 먼저 권오현 김근준(이상 1회) 송두호(3회) 정소영(6회·이상 본부) 김경희 고문(9회·재경) 등이 소개됐다.

이어 박 회장을 비롯한 정행권(9회) 강진평(10회) 안강태(10회) 박병선(14회) 송규정(16회) 서정승(17회) 권철현(19회) 진경일(20회) 박기욱(23회) 박무철(31회) 장인화(35회) 정윤성 부회장(35회) 등이 소개돼 박수를 받았다.

또 방봉우(10회) 김태우 감사(27회), 김향운 경남고 교장(13회), 울산회 김성규 회장(10회)·조광수 사무국장(13회)·김형수 직전 회장(14회)·서정옥 간사장(15회)·박춘성 총무(21회), 거제회 김장옥 고문(12회), 대구회 김종원 고문(12회)·양준영 총무(26회), 마창회 하성일 전 사무국장(22회)·김수용 사무국장(24회), 최성호 부산시의사회장(17회), 오거돈 부산시 행정부시장(21회), 제병민 용마산악회장(13회), 박정홍 경총회장(14회) 등이 차례로 소개됐다.

경남중 아마야구 최다연승 '우뚝'



부산시내 초중고 아마야구 최다연승을 이룬 경남중 선수들.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경남중(교장 강무기)이 부산의 초중고를 통틀어 아마야구에서 대동중의 15연승 기록을 깨뜨리고 '최다연승(16연승)' 위업을 세우면서 오는 5월23일부터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 부산대표로 출전하게 됐다.

경남중은 지난 3월23일 부산 구덕야구장에서 폐막된 전국소년체전 부산 대표팀 선발 결승전에서 투수 이상화가 2경임

연속 홈런과 마운드에서 노히트 노런을 기록함으로써 팀 우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앞서 같은 달 18, 19일 개성중과 부산중을 각각 11-2, 8-5로 격파했다.

한편 경남중은 같은 달 28일 구덕야구장에서 열린 부산 중학교 춘계리그 결승전에서 개성중에 10-10으로 비겨 공동우승을 했다. 경남중은 앞서 같은 달 24, 25, 26일 열린 경기에서 각각 사직중을 18-4, 부산중을 3-2, 대신중을 8-1로 물리쳤다.

올해 수학여행 일본 대마도로

제16회 신임회장 정영일

제16회동기회는 지난 3월23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대청동 육정프라자 4층 고궁뷔페에서 2003년 정기총회를 열고 정영일 동문(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채언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50여 동문이 참석해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정영일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기회 학교과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동문과 가족끼리 상호 친교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고 여름캠프를 알뜰히 운영하는 등 활성화에 전력하겠다"며 "올해 수학여행은 일본 대마도 코스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회장=정영일
△부회장=강원경 김재승
김정균 박종봉 황규정
△감사=이겸일
△사무국장=강종국

141명 참여 3천2백만원 납부

제18회 지난해 회비 규모… 김길제 회장 유임

제18회동기회는 지난 2월25일 오후 6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동기회관에서 2003년 정기총회를 열고 김길제 회장(MSC 대표이사·사진)을 유임시키고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김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결산 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이날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해에는 141명의 동문이 3천2백만 원에 이르는 회비를 납부해 감사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튼튼한 동기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회장=김길제

△부회장=김만근 김성규 김용대 김종금 김종상 김철웅 남두진 박도형 박수원 임도근 임영설 천두갑 최강등 최성호 허영태 홍우재 황대연

△감사=김종철 박석도
△총무=오수명 육병규 장수일
△홍보위원=김기성 이재일 최희영

△등산회장=김준길
△낚시회장=박도형
△바둑회장=장연식
△골프회장=정달주

한편 재경회와 울산회도 최근 각각



이중식(34회) 재경동창회 신임총무

신준호(14회·롯데종합우유 회장) 재경동기회 회장은 최근 재경회 살림을 꾸려나가는 신임 총무에 이중식 동문(34회·사진)을 임명했다.

한국외국어대 경영학과를 나온 이 동문은 학사장교(7기)로 전역한 이후 한진그룹 동양화재 마케

팅실 교육부에서 일했고 현재는 홈페이지 제작 전문인 제주웹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맷고 끊임이 분

명하고 소탈한 성격의 이 총무는 남을 배려·포용하는 힘이 강해 조직 활성화와 동문·가족 유대 강화를 위해 적극 헌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문 사망시 동기회서 조의금

제8회 재경동기회 올해 첫 이사회 의결

제8회재경동기회는 지난 4월 2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 해장국으로 유명한 홍진옥에서 올해 첫 이사회를 열었다.

강성태 회장이 주재한 이날 이사회는 그간 유보됐던 △5

월 중 1박2일 코스로 경남 남해 군내 남해자애원(고아원) 방문 후 근교 관광 △동문 본인 사망시 조화 외 약간의 조의금 전달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이 밖에 동기회 활성화와 가족동반 행사 등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기총회를 열고 2003년 지역회를 이끌어나갈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 재경회 집행부

△회장=최을봉

△부회장=강정일(수석) · 오세복(홍보) · 변호인(비북) · 박중수(등산) · 정구홍(골프) · 김부경(테니스)

△감사=권병우 박용주

△총무=이원행

△기우회장=허성태

△등산회장=손영종

△테니스회장=김종박

△골프회장=김만수

■ 울산회 집행부

△회장=민병근 △총무=유성룡

본부 이사회 · 회장단회의 개최

결산·예산안 심의 · 상반기 각종 행사 적극 성원키로

본부 회장단 올해 2차 회장단 회의가 지난 4월 23일 오후 6시 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대어에서 열려 상반기 조직활성화 방향 등을 재확인했다.

박동열 회장(8회 · 해운대성심병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흥커밍행사(제7 · 17 · 27 · 37회), 기별대항낚시대회, 용마테니스대회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특히 모교 60년사 자료수집 적극 지원과 회보 축쇄관 제3집 발간을 위한 광고 유치 등에 앞장서기도 했다.

또 경남고 야구부 기량배양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경남중에는 야구부의 전국소년체전 부산 대표 출전에 즈음해 격려금을 지

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회장을 비롯, 정행권(수석) · 한동대(이상 9회) · 오강욱(10회) · 안강태(11회) · 송규정(16회) · 윤성덕 죄거훈(이상 30회) · 박명진 부회장(33회)과 김형석(16회) 홍보이사 · 김병수(22회) 총무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본부 이사회는 앞서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 30분 부산 중구 대청동 서라벌호텔 3층 무궁화홀에서 박 본부회장 주재로 올해 첫 회의를 열어 본부 제40차 정기총회에 상정할 본부 · 용마장학회 2002년 결산보고 및 2003년 예산안을 각각 심의, 통과시켰다.

또 1997년부터 기산해 이전의 악성 미수금에 대해 결손처분할 것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100여 명의 이사들이 참석했다.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지 일대에서 펼쳐진 제14회 기별낚시대회(오른쪽)에서 제22회가 우승, 대망의 우승기를 받고 있다.

제22회, 대망의 우승 낚았다

본부 주최 제14회 기별 대항 낚시대회…준우승 제31회

MVP 박경환(29회) · 조별우승 강동숙(6회) 홍창우(18회) 이재홍(21회)

지난 4월 27일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근교 장안지 일원에서 열린 동창회장기 쟁탈 제14회 기별대항 낚시대회(주최 본부동창회 · 주관 경수회)에서 제22회동기회가 단체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준우승은 제31회동기회, 개인종합우승은 225mm를 낚은 박경환 동문(29회)이 각각 차지했다.

이날 오후 2시 정수예인촌 운동장에서 시상식이 거행됐다.

일행은 시상식 직후 열린 단합회에서 소줏잔을 나누는 등 뒤풀이를 즐긴 후 귀가했다.

앞서 이날 오전 4시 30분 부산을 출발한 대회 임원 · 선수 · 응원단 등 27개팀 150여 용마가족은 오전 6시 진경일 경수회장(20회)이 주재한 입장식에 이어 일제히 경기

에 들어갔다.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 단체상

▷ 종합우승 = 제22회 A팀(선수

김성재 김정세 손용섭 640mm)

▷ 준우승 = 제31회(선수 박정호 이의환 천장호 605mm)

▷ 3위 = 제34회(선수 박창표 오주흔 이정철 518mm)

▷ 장려상 = 제41회(선수 김득수 이종우 정승서)

■ 개인상

▷ 종합우승 = 박경환(29회-225mm) · 준우승 = 김홍진(21회 A-220mm) · 3위 = 이부홍(16회-216mm)

▷ 청조 = 우승 강동숙(6회) · 준우승 성덕수(17회) · 3위 이희일(14회)

▷ 녹조 = 우승 홍창우(18회) · 준우승 임영수(30회) · 3위 백명조(13회)

▷ 적조 = 우승 이재홍(21회 B) · 준우승 윤병룡(6회) · 3위 육병규(18회)

▷ 자연보호상 = 박문기(12회) 박해두(17회) 장종우(38회).



지난 3월 20일 열린 마산-창원지역동창회 2003년 정기총회.

△ 감사 = 박소웅(16회 · 유임) 민병위(19회)

△ 사무국장 = 김수용(24회)

△ 충무 = 정경현(32회)

△ 부충무 = 박정수(34회 · 수석)

이대용(36회) 김성준(42회)

△ 회보편집장 = 김정육(26회)

△ 진행부장 = 안정모(32회).

제13회 총회…회장 박영충



제13회 동기회는 지난 1월 23일 부산 서구 서대신동 산정농원(이범경 동문 운영)에서 2003년 정기총회를 열고 박영충 동문(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구창덕 회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총회는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회장 선출에 이어 수석부회장에 김장웅, 감사에 신민철 서종학, 충무에 문현길 문형재 동문을 선임했다.

등산 후 자연산 생선회맛 "죽여주네"

본부 용마산악회 올해 첫 산행대회 벽방산서

본부동창회 용마산악회 올해 첫 산행대회에 동문 157명과 가족 25명 등 모두 180여 명이 참가해 우정이 신록 속에 싱그러웠다.

지난 3월 23일 경남 통영시 근교 벽방산(650m)에서 펼쳐진 용마산악회 올해 1차 정기(통산 12차) 산행대회는 제병민 산악회장(13회)의 주재로 치러졌다(사진).

용마가족들은 이날 오전 11시 통영시 중촌마을 산행 들머리를 출발한 후 가섭암~의

상암~549능선에 도착(12:30) 했다. 이곳에서 1시간 동안 점심식사 · 휴식에 들어갔다.

일행은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박종규 산행대장(31회)의 리드에 따라 강행군, 오후 2시 이날의 목적산인 벽방산에 올랐고, 하산을 서둘러 안정치~천개산 응봉암~안정사로 내려와 오후 4시 산행을 끝냈다.

용마가족들은 귀가에 앞서 당항포 대호프라자에서 자연산 불락 · 우럭 · 놓어 등으로 차려진 생선파티를 즐겼다.

마창회 정기총회…여환부(21회) 용마대상 받아

신임회장 김진환(21회) 선임

마산-창원지역동창회는 지난 3월 20일 경남 마산시 사보이호텔 사파이어홀에서 2003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김진환

동문(20회 · 대아건설 대표이사 · 사진)을 선출했다.

김재근 회장(19회)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김

회장은 앞서 여환부 동문(21회)에게 용마대상을, 변일수(16회) 강인섭 동문(18회)에게 공로패를, 배선호(29회) 김의석 동문(31회)에게 감사패를 각각 전달했다.

△ 회장 = 김진환(20회)

△ 부회장 = 최민석(21회 · 수석)

강상대(22회) 최호덕(23회) 김태

홍(24회) 이상희(25회) 한원우(26회)

김성주(27회) 정영주(28회)

배성호(29회) 김해곤(30회) 홍기

철(31회)

회보 광고 협찬 안내

동문 여러분을 광고주로 모십니다.

크기 · 금액

하단 전체(8.2cm × 25cm) : 400,000원

하단 1/2(8.2cm × 12cm) : 200,000원

하단 1/4(8.2cm × 6cm) : 100,000원

내용

업체소개, 주요 취급품목, 대표자명(사진포함)

연락처, 기타 알리고 싶은 사항

문의사항

(051)245-7551~2



www.hojuedu.net.au

호주조기유학센타

- 호주 명문 공 · 사립학교 장기유학 및 단기유학(4~12주) 무료상담, 입학 및 비자수속대행
- 여름방학 중 호주파견학생프로그램(4주, 3주) 시드니 소재 공립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수업하고 호주학생 가정에서 홈스테이 하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교육적 효과가 큰 고품격의 프로그램

공동대표 강세훈(전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박진홍(33회)

시드니 본사

Suite 208, 4 The Boulevard, Strathfield
NSW 2135 Australia
전화 : 61-2-9744-3545 팩스 : 61-2-9744-3586
E-mail : Info-sydney@hojuedu.net.au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5-1
21센츄리시티 O/T 1426호
전화 : 051-610-0736 팩스 : 051-610-0737
E-mail : Info-korea@hojuedu.net.au

남기용 회장 유임 제12회동기회 총회

제12회동기회는 지난 2월 25일 오후 6시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국제호텔 연회실에서 동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남기용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 개선을 통해 남 회장을 유임시켰고 부회장 겸 총무에 천구성, 감사에 정대식 동문을 선임했다.

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총의에 따라 사무실을 중앙동 쪽으로 이전해 조직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족동반 원칙 경부친선 행사 추진 재경 제12회 이사회

제12회재경동기회는 지난 3월 28일 서울 삼복회에서 올해 첫 이사회를 열고 가족동반을 원칙으로 하는 경부친선아유회 등을 추진하는 조직활성화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34회 새 회장 양철용

제34회동기회는 지난 3월 13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 뷔페홀에서 2003년 정기총회를 열고 양철용 동문(동남아종합서비스 전무이사·사진)을 신임회장으로 뽐았다.

정하태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임원을 개선했고, 회장 선출에 이어 본부 부회장에 류세호, 본부 이사에 양철용 이수영 동문을 각각 추천키로 했다. 총무는 김중근 동문이 맡았다.

용봉산 정상 거둔히 일육회 회장 이겸일

일육산악회(제16회동기회)는 지난 4월 19~20일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 삼척 근교 용봉산에서 가족동반 산행대회를 열었다.

김찬문 회장이 이끈 이날 산행에는 동문·가족 34명이 참석했고 산장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장 이겸일, 부회장 손송방, 감사 김미록, 산행대장 서태복, 총무 최정일 동문을 뽐았다.

일행은 19일 오후 경북 울진 죽변항에 도착해 영덕대계로 저녁식사를 한 후 전야를 열었고, 뒷날 20일 새벽에 일어나 산행에 들어가 선녀탕~용소폭포 등을 거쳐 이날의 목적산인 용봉산 정상을 밟았다.

이어 하산을 마친 동문·가족들은 덕구온천에서 온천욕으로 피로를 씻고 불영계곡과 불영사를 관광한 후 김포횟집에서 단합회를 즐겼다.

박경원 전 모교교장 별세

경남고 제5대 교장을 역임한 박경원 은사님(사진)이 지난 4월 8일 오전 6시 서울 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88세.

지난 1961년 9월 1일 모교 교장으로 부임한 박 은사님은 12년 가까이 모교에 봉직하면서 과학관을 새로 짓는 등 교육시설 확충과 학력 증진에 남다른 지도력을 평했다.

이후 부산여고 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문화재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 1978년 9월부터 85년 11월까지 기반이 열악했던 부산 시립박물관 관장을 맡아 기틀을 튼튼히 세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제24회-지리산 기슭 하점마을 기매결연...더더쿵 굿판

자매결연식에서 동문들과 마을 주민 대표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념품·발전기금 전달 특산품 판매 앞장서기로

산을 사랑하는 용마가족들이 지리산 기슭 한 마을과 자매결연, 마을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해 화제다.

지난 4월 10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하점마을, 정과 꽁과리를 치고 북과 장고 등을 올리며 한마당 굿판을 벌이는 주민들 속에서 용마들이 덩더쿵 춤을 추며 어울리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제24회동기회 산우애 동문들. 태창업 동기회장을 비롯한 안형수 장수현 황성동 등 10여 명의 산사나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마천면사무소에서 열린 ‘경남중고동창회

제24회 산우애-경남 함양 하점마을 자매결연식’을 마치고 하점마을회관에서 축하공연(?)을 펼치던 중이다.

태창업 회장은 앞서 결연식에서 동기회를 대표해 기념타올 50장과 마을발전기금 20만 원을

토종 흑돼지 바베큐 꿀·머루주 등 선물 받아

전달하고 “앞으로 힘닿는 데까지 마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기념품·발전기금 일부 태 회장 협찬).

제24회 용마들은 이날 마을환경회에서 토종 흑돼지 바베큐를 비롯, 각종 산나물 산머루주 등으로 차려진 응酬한 잔칫상을



받았고 귀가 때는 토종꿀 산머루주 산나물 고로쇠수 등을 선물로 받았다.

이날 제24회-하점마을 자매결연은 도·농 간 적극 교류·화합을 위해 함양군이 추진 중인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이뤄진 것.

제24회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하점마을을 위시한 지리산 기슭의 각종 특산품을 동문·가족들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팔아주고, 휴가철 등에는 이 마을로부터 민박을 포함해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등 상호 지속적인 유대를 촉진하기로 했다.



허광열 회장 유임 제6회 총회 겸 신년회

제6회동기회는 지난 3월 27일 오후 6시30분 부산 사상구 서부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파라곤호텔(전무이사 배종환 동문) 뷔페홀에서 신년회 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허광열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최병수 총무 사회로 진행,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했고 임원개선을 통해 허 회장을 유임시켰다. 이날 40여 명의 동문들은 총회 직후 열린 신년회에서 회장단의 축하 케이크 커팅과 정소영 동문(본부 고문)의 제의에 따라 축배를 들고 건강과 동기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부산의 저력 서울서 한껏 발휘

제15회 경부바둑대회 우승 일오팀 장정문

보름기우회(제15회재경동기회) 주관 부산 회원 초청 경부합동바둑대회가 지난 3월 23일 서울 북창동 한국기원 서부지원에서 열려 부산의 장정문 동문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전날 22일 저녁 북창동 보성녹동에서 재경 회원들은 부산 회원들을 위한 전야제(강부부·오봉석 동문 등 스폰서)를 베풀었다.

이날 대국에는 재경회원 24명 ·

부산의 일오기우회 회원 8명(이추남 회장·정창용 총무·박재홍 박재준 전동석 김훈 한도근 장정문) 등 모두 32명이 참석했다.

한편 전날 22일 저녁 북창동 보성녹동에서 재경 회원들은 부산 회원들을 위한 전야제(강부부·오봉석 동문 등 스폰서)를 베풀었다.

바로 잡습니다

본보 제238호(2003년 3월 12일자) 1면 「모교 60년사 자료 발굴」기사 중 ‘모교야구단은 일본 고시엔(甲子園) 구장에서 일본 고교팀과 경기를 했다’는 내용은 ‘한·일 고교야구교환 경기차 일본에 온 한국대표팀(경남고 8명 등·야구부장 이길상·6회)은 고시엔 구장에 들러 야구장을 둘러보고 경기를 관전했다’로 바로잡습니다. 또 4면 「영진 경사」기사에서 ‘박봉희(19회)…’ 제목 중 (19회)는 (21회)의 오기 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제27회 충청회 출범…시끌벅적

제27회동기회 충청회가 지난 3월 10일 대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출범했다. 이날 분위기를 재경회 이승준 총무가 지상증계한다. <편집자>

그렇게 벼르던 ‘충남·북·대전회’ 출정식. 지난 3월 10일 저녁 대전의 ‘여자만 장어구이집’에서 “홈커밍 행사 전에 한번 모이자”는 뜻이 결집된 결과이다. 서울에서 김동조 회장(이달 스폰서)과 이승준 총무(몸부조)가 천안 레게이트에서 도재원·김철수를 태워 내려가 이름도 아사모사한(?) ‘여자만 장어구이집’에 닿았다. 여자만 가는 데가 했는데, 남자가 더 많더군..

초대회장 유용호 선임 은사 끌려온 추억당 등 그리운 마음 절절

이사온 공주대 위오기 교수 등이 모여 있었다. 다들 반가워한다. 같이 대전에 있어도 이때까지 동문들이 따로 모인건 처음이라니.. 계룡산 도사 위오기 교수가 역시 깊

회동기회 사무실(051-247-1958) 현장에서 3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방 이전 축하회를 주재하고 새로운 결의 속에 발전하는 동기회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12회 사무실은 그간 부산 중구 부평동 골든오피스텔에 있었다.

이 있는 얘기를 많이 하고, 김철수 교수가 온갖 우스갯소리로 재통을 떤다. 이후 술이 한 순번색 도니까 분위기가 제법 살아난다. 학교 다닐 때, 수학 여행 갔다가 술 취해 자는 강 모 선생님 “를 뛰어서 매달아 놓고 사진 찍었던 일, 선생님들한테 얹어맞던 일 등등 추억들이 마구 피어오른다.”

“야 인자, 우리 정기적으로 모이자!”라고 누군가 제의하자, 연락을 담당할 회장을 뽑자고 해 이번 모임의 산파 역할을 한 류용호가 만장일치로 벼락감투(?)를 쓴다.

모임 이름은 ‘충청지역 제27회동기회’라고 부르기로 합의. 3시간30분간의 모임이 막을 내린다. 2자는 다음으로 기약하고 아쉬운 이별의 약수를 서로 나눈다.

김계순(^{10회})
정치학박사 학위 취득

김계순 동문(10회 · 사진)은 양산고 교사로 재임하면서 경남대에 출강, 후학지도에 힘쓰던 최근 경남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동문이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은 '미국의 필리핀 군사기지 설치와 반란'이다.

강성대(^{16회})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강성대 동문(16회)은 10여 년 전부터 카자흐스탄에 진출,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상품을 이 나라 정부발주 공사에 납품하는 등 수출신장에 전력, 국위를 선양하는 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지난 3월19일 제3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강 동문은 주카자흐스탄 한국 대사관의 추천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최성호(^{17회})
부산시의사회 회장 선임

최성호 동문(17회 · 사진)은 지난 4월1일 열린 부산시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부산대 의대를 졸업한 최 동문은 개업의로서 병원 일, 수필가로서 글쓰는 일 등 바쁜 생활속에서도 본부동창회 이사와 동기회장 등을 지내면서 동창회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

특히 개성 강한 부산시의사회를 이끌어나갈 사령탑이 됨에 따라 현안문제 해결에 타고난 부지런함과 애설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동문은 매년 경남고 졸업식에서 부산대 의대에 합격한 후배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김기춘(^{6회}) 국회 법사위원장 선임
이주성(^{6회}) 국세청 차장으로 영진

김기춘 동문(12회 · 사진 위)과 이주성 동문(22회)이 최근 각각 국회 법사위원장과 국세청 차장으로 영진했다.

2선의원인 김 동문(서울대 법대 · 고시12회)은 대통령법률비서관 · 대구지검 고검장 · 법무연수원장 · 검찰총장 · 법무부 장관 ·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등을 역임했다.

이 동문(동아대 경제학과 · 행시16회)은 국세청 기획관리관 재임 중 차장으로 승진했다.

이 동문은 본청 조사1과장 · 중부청 조사1국장 · 서울청 조사2국장 · 부산청장 등을 역임했다.



5월 16~19일
서·남해안 관광

재경15회 버스투어

제15회 재경동기회가 오는 5월16~19일 3박4일 코스의 버스투어를 실시한다.

지난 3월17일 오후 7시 강원도 강릉시내 옛날집에서 주정중 재경회장 주재로 열린 회장단회의 △당초 5박6일 일정을 3박4일 축소 △남자들만 참석 △버스 2대로 서 · 남해안 일주 △경비 35만원 중 20만원은 본인 부담 △나머지 15만 원은 동기회 기금 · 특찬금에서 지원 등을 의결했다.



제15회동기회 정기총회에서 동문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제15회 새 회장 박찬호

제15회동기회는 지난 3월28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동광동 부산호텔 2층 후레지아홀에서 동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박찬호 동문(신승원텍 대표이사 · 사진)을 선출했다.

정창환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 개선을 통해 회장을 뽑고 이어 부회장에 강부남 권승부 김경일 김염훈 유경수 이정부 임병철 최광웅 허두영, 감사에 강무상 김정환, 동기회관 운영위원



장에 한해수, 총무에 최병우 조일랑(동기회관 운영실장 겸임)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보름산우회 북한산에

보름산우회(제15회 재경동기회) 2003시산제가 지난 3월2일 북한산 비봉 밑 절터에서 열렸다.

신현영 산우회장이 제주가 되어 축문을 읽은 이날 시산제에서 주정중 동기회장을 비롯, 36명의 산우들은 그룹별로 절을 올렸다.

자꾸 자꾸 듣고 싶은 당신의 이야기

회보편집위원회에서는 동문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학창시절 추억이나 잠시 잊고 지낸 여러분의 꿈...
지금 일상의 이야기까지 어떤 소재도 가능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4~5장 이내 (명함판 사진 1장 동봉)

<보내실 곳>

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52-3 골든오피스텔 411호(600-074)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전화 : 051)245-7551~3 팩스 : 051)245-7550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김수민(^{25회}) 부산지검 2차장검사 발탁

검사동문 7명 영진

안종택(^{27회}) **군산지청장**
문규상(^{27회}) **대검 범죄1담당관**
이영우(^{27회}) **서울고검 검사**
조한욱(^{29회}) **대전고검 검사**
노동표(^{34회}) **인천지검 공판부장**
정인창(^{37회}) **대전지검 공안부장**



김수민 동문



안종택 동문



문규상 동문



이영우 동문

최근 단행한 검찰인사에서 춘천지검 차장검사에서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발탁된 김수민 동문(26

회 · 사진)을 비롯, 7명의 검사 동문이 영진했다.

△김수민 동문(성균관대 법대 · 사시 22회) = 춘천지점 차장검사에서 부산지점 2차장검사로.

△안종택(27회 · 서울대 법대 · 사시 20회) = 대전고검 검사에서 군산지청장으로.

△문규상(27회 · 서울대 법대 · 사시 26회) = 부산지검 특수부장에서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으로.

△이영우(27회 · 서울대 법대 · 사시 21회) = 창원지검 차장검사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조한욱(29회 · 부산대 법학과 · 사시 23회) = 서울 동부지청 형사1부장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부패방지위원회 파견.

△노동표(34회 · 서울대 법대 · 사시 27회) = 창원지검 형사3부장 검사에서 인천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정인창(37회 · 서울대 법대 · 사시 28회) = 전주지점 부부장검사에서 대전지검 공안부장으로.

동창회발전기금 즉석 조성

대전회 새 회장 김찬만(^{20회})

특히 신임회장단과 제20회동기회에서 동창회발전기금 210만원을 페척, 박수를 받았다.

△회장=김찬만

△수석부회장=김성수(21회)

△부회장=김대업 유재형 이명환(이상 21회) · 이명훈(23회)

△감사=김성래(24회)

△총무=김영호(25회)

△재무=김민규(28회).

제27회동기회 27마라톤회 남녀 마라토너들은 지난 3월29일 오후 6시 부산 해운대 동백섬을 출발, 왕복 5km 거리의 미포선착장까지 달렸다.

3월 서퍼트에는 박상훈 회장을 비롯, 이형복(부인 한경애) 장기남 최경룡 태기섭 강봉호 이태주

조봉관 동문(부인 김종순) 등 10명이 참가했다.

달리기를 마친 일행은 할매복국집에서 열린 단합회를 통해 이형복 동문으로부터 자신이 도안한 마리톤회 로고 '27 Runners Club'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들을 개진했다.



클릭!! 클릭!!

www.kyungnam.or.kr

모교와 동창회의 소식이 가득한 동창회 홈페이지를 지금 클릭하세요.

* 홈페이지에 알고 싶은 내용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동창회 사무국(051-245-7551 ~ 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제8회 동기회

관악산·수락산 등 누벼
경팔산우회(회장 김영철)는 지난 4월 26일 김 회장을 비롯, 9명의 산사나이들이 관악산에 올라 호연지기(?)를 했다. 이들은 19일에는 수락산에, 12일에는 도봉산에 올랐다.

5월3일 친선대국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지난 4월 19일 일품기원에서 4월 정례대국을 벌였고, 오는 5월 3일에는 오후 1시 30분부터 5월 대국을 개최할 예정이다.

골프우승 조윤제·문경희

잔디회(회장 배주원)는 지난 4월 3일 안성CC에서 제119회 월례회(24명·6팀 참가)를 열었다.
이날 남자부는 우승 조윤제(85타 -2)·준우승 김호석·3위 전영배·니어리스트상 홍기성·행운상 이창근 동문이 랭크됐다.
또 여자부는 우승 문경희(90타 -2)·준우승 전은희·니어리스트상 이정자·행운상 장은아씨 차지.

제10회 동기회

3월 골프우승 김재곤
장기상 금일봉 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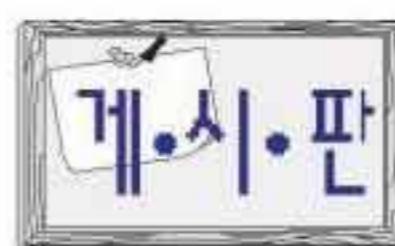
경록회(회장 이정배)는 지난 4월 24일 자유CC에서 정례회를 개최했다. 앞서 3월 2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3월대회에서는 우승 김재곤·메달리스트 김연수·준우승 진강·3위 이정배·통기스트 안우만·니어리스트 차동열·행운상 서진홍 동문이 차지했다.
한편 장기상 동문은 지난해 12월 납회 대회에서 우승 턱으로 금일봉을 회사했다.

정우회 정례 모임 장소
관문테尼斯코트로

강남회(회장 성온)는 지난 4월 22일 낮 12시 서초길비촌에서 만났고, 사나조아(회장 이계창)는 20일 청계산에 올랐으며, 앞서 5일에는 4·19단 옆으로 난 진달래 능선에서 산행을 했다. 정우회(회장 박철민)는 17일 과천종합운동장 안 관문테尼斯코트에서 각각 월례회를 열었다.

박해철 회장 갑작스레 타계
동수회, 새 회장 김영복

여의도회(회장 최윤해)는 15일 정오 광산반점에서, 동수회(회장 김영복)는 12일 오후 1시 양재동 강남바둑에서 각각 월례회를 개최했다.



특히 동수회는 박해철 회장이 타계함에 따라 김영복 동문이 뒤를 잇게 됐다.
안산회(회장 김기문)는 8일 정오 안산 중앙역 달빛목추어팅집에서, 강북회(회장 이효술)는 1일 정오 중앙극장 앞 평래옥에서 각각 모여 봄소식을 주고받았다.
한편 일금회(회장 장성봉)는 지난 3월 28일 일식집 화정에서 정례회를 열었다.

제15회 동기회

3·6반창회 삼육회 창립

삼육회(회장 이승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7시 부산 연제구 거제동 동주복지에서 3·6반창회인 삼육회 창립총회(6명 참석)를, 사하회(회장 권승부)는 같은 달 25일 오후 7시 부산 사하구 하단동 동백봉계술불길비집에서 제48차 정례회(15명 참석)를 각각 열었다.

동기회관 운영위 3차 회의

동기회관운영위(위원장 손부홍)는 같



은 달 18일 오후 7시 부산 서면 다원정에서 올해 3차 운영위(13명 참석), 의약회(회장 김중광)는 같은 달 17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 뷔페홀에서 정례회(8명 참석)를 각각 개최했다.

화친회(회장 김판열)는 같은 달 11일 소도(13명 참석)에서, 이화회(회장 이동근)도 같은 날 부산 연제구 연산동 코리아나비페에서 정례회(9명 참석)를 각각 열었다.

삼오회 서울서 합동반창회

삼팔회(회장 최병우)는 같은 달 7일 오후 7시 장춘방에서 제51차 정례회(12명 참석)를, 삼오회(회장 손부홍)는 같은 달 5일 오후 7시 부산 서구 동대신동

오막집에서 정례회(7명 참석)를 각각 개최했다.

특히 삼오회 모임에서는 대구의 김종한 동문 참석을 크게 환영했고 고(故)이현우 동문의 명복을 비는 추모식을 올렸다.

특히 같은 달 15일 서울에서 부산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부합동반창회를 열기로 했다.

제28회 동기회

홈페이지 새롭게 구축
www.kn28.com
제28회동기회 홈페이지(www.kn28.com)가 권수원 동문(개선추진위원장)의 노력으로 멋지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새로 구축됐다.

이에 따라 모든 동문들의 정보공유가 원활해졌고 특히 예년 출업 30주년 기념 흡커밍행사 준비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기우회 회장 이원용
총무는 '바맹' 정인식

기우회(회장 이원용)는 지난 4월 19일 오후 2시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 근처 현대홈타운2차상가 2층 프로기사

인 이관선 동문이 운영하는 이관선바둑 교실에서 월례회를 열었다.

이날 재창립의 뜻을 담은 모임에서는 이원용 동문을 회장으로 새로 뽑고 총무에는 이례적으로 '바맹'(바둑을 전혀 두지 못하는 친구)인 정인식 동문을 임명했다. 이는 바둑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은 간에 바둑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신우회(회장 김영명)는 지난 4월 13일 경남 마산시 근교 무학산(767m·통산 71차 산행)에 올라 진달래 구경을 한껏 했다.

동우회(회장 조광제)는 지난 4월 27일 동부산CC에서 정례대회를 열었다. 이날 우승 정영주·메달리스트 서영대·준우승 조광제·행운상 노영현 동문이 차지.

051-816-5896, 017-595-2982

제 15 회

金茂吉=(자택이사)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28-14 한솔강변아파트 101동 702호, 031-513-0038

韓桃根=(주)조선산업개발 영업본부장으로 취임. 부산 금정구 구서2동 184-3 해강빌딩 11층, 051-582-6123~4, 018-236-5123, 팩스 051-582-6125

朴俊哲=부산맹학교 교장, 051-529-3393

鄭昌煥=3월 15일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본관 2층 대연회장에서 장남 재찬군 결혼

河永守=3월 22일 수영로교회에서

차녀 은진양 결혼

제 16 회

金茂光=우정기업사 대표, (사무실이전)부산 영도구 청학2동 1-82, 051-412-3399

崔安弘=미키연합소아과원장, 051-334-1817, (병원이전)부산 북구 화명동 2277 우리메디칼센터 4층, 3월 15일 모친 별세

池秀信=(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좌동 현대아파트 108동 1601호, 051-744-1519, 3월 23일 장남 정민군 결혼

李榮珪=(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중동 1154 삼성콘도 705호

朴正秀=세브란스병원 일반외과 과장. 아들 결혼시키고 동기회사

어디서 무엇을

제 1 회

秋世鳳=3월 19일 별세

제 6 회

李石雨=3월 1일 병환으로 별세
權奇男=3월 7일 모친 별세

제 7 회

金富容=福岡市 中央区 草香江 2-11-1 大濠パークハイツ 308下久保一枝, 001-81-9011977263

제 8 회

金文覺=3월 29일 목화예식장에서 아들 수용군 결혼

李熙玉=4월 13일 파크웨딩홀에서 딸 수민양 결혼

李同根=(망미동) 4월 19일 남구보건소 오륙도웨딩홀에서 아들 민호군 결혼

金乙煥=(감만동) (자택이사)충남 천안시 신방동 909 한라동백2차 아파트 106동 205호, 041-574-1635

李陽熙=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17 삼성타워팰리스 E동 1401호, 02-6677-5646, 011-556-6133

趙銳濟=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629 삼거마을 삼성래미안1차아파트 113동 803호, 031-890-3322, 011-305-3322

제 10 회

알림 : 동기회 회원수첩 제작중입니다. 빠른 시일내 동기회사무실로 증명사진 1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31-10 부송빌딩 3층, 051-467-8498

張炳泰=부산 북구 화명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201동 1901호, 051-333-1963

李彥善=부산 서구 서대신동 2가 408-8, 051-231-6629

尹富煥=대아ENG(주) 회장, 051-326-0822, (자택)부산 사하구 다

무실에 감사의 편지 보내옴
鄭秀炳=(주)대방건설 부사장, 4월 10일 모친 별세

洪晶吉=(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좌동 1374 대림아파트 304동 2401호, 4월 18일 완석회(수석전시회) 개최

河希鎮=(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중2동 1476 동경빌라 501호

朴箕容=바르게살기운동 부산진구 협의회장, 051-802-2119, 4월 20일 딸 소현양 결혼

朴相範=명동병원 원장, 051-552-1884, 4월 26일 장녀 미정양 결혼

劉正豪=4월 17일 시카고에서 일시 귀국. 시카고 지역 안부 전하고 동기생 20여명 초청하여 회식 제공

尹孝柱=4월 26일 장녀 영정양 결혼

대동 현대아파트 107동 2304호, 051-265-0492

李奉源=부산 사하구 다대동 155 다대대우아파트 103동 2001호, 051-262-1452

朴海哲=3월 12일 별세
金海龍=3월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차남 결혼

全圭三=3월 15일 모친 별세
梁鉉斗=병기병과 출신 예비역 친목단체인 병기동우회 회장으로 선출, 02-532-4679, 016-207-9983

河奉洙=2월 8일 안양문화센터 웨딩홀에서 아들 중현군 결혼
曹圭鑑=2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정년 퇴임 기념연 가짐

제 11 회

崔亨旭=울산합동관세사무소 대표, 052-272-6975, (자택이사)울산 남구 무거동 835 쌍용스윗당 101동 702호, 052-277-6239, 018-567-6239

朴德九=2월 18일 별세
安鍾寅=(자택이사)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 251, 052-254-4031, 016-571-4031

제 12 회

嚴泰燮=3월 1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취임

南基鎔=동기회 회장, 3월 10일 모친 별세

李煥徵=(자택이사)부산 동래구 안락동 441-62

金淇春=국회법사위원회 위원장 취임

金鍾源=3월 28일 본부동창회 제40차 정기총회에서 공로패 수상

제 13 회

高時準=4월 5일 전주 리베라호텔 1층 백제홀에서 딸 승희양 결혼

李孝俊=4월 5일 마산 삼일교회에서 장남 동민군 결혼

宋匡司=(자택이사)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삼성로 알뜰리스 D동 2501호, 031-726-5544, 018-303-5544

제 17 회

鄭烘原=법무연수원 원장, 031-286-2500

姜鑑逸=부산시 공동모금회 사무처장, 051-441-9423

金培淵=동아대학 본부 연구처장, 국제기구인 아시아 산업보건학회 수석부회장에 피선

金政秀=4월 13일 새마당예식장에서 아들 결혼

朴仁士=동기회 산악회 회장, 동구의사회 회장, 로타리지구 회장

趙鏞雲=보배당약국 이전 개업, 051-518-4140, 019-551-4613

王英貫=(자택이사)부산 연제구 거제4동 유림아시아드 109동 2501호, 051-507-6331, 017-559-6339

(7면에

<6면에서 받음>
李載斗=수영구청 사회산업국장
崔聖湖=부산시 의사회 회장
玄泰一=세영병원 병원장

제 18 회

梁龍吉=환경시설공단 상임이사. 051-760-3203
馬鍾準=명신비료 대표이사 취임. 052-264-8951, 011-467-7485. (자택)부산 해운대구 좌동 1337 현대아파트 102동 2304호, 051-731-9874
孫天益=1월 19일 아리랑호텔에서 고년향씨와 결혼. (자택)부산 동구 초량2동 880 쏠라맨션 나동 101호, 051-468-5990

姜大圓=부산세관 납세보사과장. 051-460-6350

金東善=해인화학 부사장. 055-364-8600. (자택)055-364-8400

林道根=3월 10일 하단 현갤러리에서 부산하모니합창단 창단식 갖고 단장으로 취임

朴貴煥=상지건설 감리본부 상무. 해운대구 우1동 198-9 (2/2)

姜成泰=2월 8일 장정동 제일교회에서 장녀 정화양 결혼

金用大=1월 25일 해운대 조선비치호텔에서 장녀 현영양 결혼

宋裕峰=1월 25일 행복예식장에서 장남 상원군 결혼

金永一=1월 12일 양정동 화지문화원 웨딩홀에서 장남 경준군 결혼

南斗鎮=1월 8일 금강예식장 다이어몬드홀에서 차남 경완군 결혼. 2월 23일 모친 별세

千斗甲=1월 13일 부친 별세

金吉出=지난해 12월 4일 모친 별세

제 21 회

吳巨敦=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사학위 취득(동아대 행정학). 051-888-2010.

朴奉欽=기획예산처 장관 취임

姜民宇=4월 27일 장녀 결혼. 051-632-7301, 011-9541-2521

朴敏植=4월 8일 부친 별세(박경원 전 경남고 교장)

李晶揆=경성대학교 약학대교수. 051-620-4880

姜榮徒=삼성통증의학과의원 개원(5월 초순). 011-862-7938

姜旬錫=사조산업 이사. 011-9513-9510

李忠求=연합캐피탈부산지사장. 삼성금융플라자빌딩 9층. 051-636-6683, 011-9881-3510

李康男=변호사 개업(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임후. 3월 14일) 051-506-8330, 017-856-6773

李載和=다사랑꽃집 대표. 051-868-2020, 017-558-7818

呂煥富=중앙토건 대표. 4월 6일 장남 결혼. 055-243-3391, 011-865-6700

權永珣=울산대 금속공학과 교수. 3월 1일 장녀 결혼. 019-526-3751

姜炳己=울산과학대 교수. 공간디자인학부장. 011-873-2775

朴自民=닛시(전자제품) 대표. 5월 10일 차남 결혼. 018-508-8594

權容孝=부산시 기장군청 군의회 사무과장. 051-722-7006, 017-856-8803

제 24 회

姜昌德=(주)비전통상 이사. 판촉물·기념품 전문 취급업체. 051-755-3444

金鳳庸=경북대 농대 교수. 교환 교수로 도미

文燮濟=부산은행 감전동지점 지점장. (자택이사)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경남한신아파트 101동 701호

朴昌浩=부산일보 편집국장. 051-461-4100

玉太仁=코리아비페웨딩홀 개업. 부산 사상구 학장동. 051-327-4004

孫世榮=경상전문대 경영학과 교수. (자택이사)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 구덕하이츠빌라

朴仁虎=동아대 학생명과학부 교수. 3월 1일 교무처장 발령. 051-200-7265

李基元=교육청 기획인적자원과 인적자원개발담당사무관. 051-8600-325

林德喆=(자택이사)부산 사하구 당리동 청진아파트 3동 501호

朱泳基=(자택이사)부산 영도구 동삼1동 에덴금호타운

제 25 회

金宗勳=한국감정원 사상지점 차장. 051-315-6151

申鉉大=동양사 대표. 018-255-7317

金九和=경남고교 교사

朴德培=동아약국 대표. 3월 18일

모친 별세

鄭信培=영신스포츠센터 대표. 3월 26일 모친 별세

石昌在=4월 2일 모친 별세. 011-9487-1799

제 26 회

金秀敏=부산지검 2차장. 051-606-3300

蔣景在=동의의료원 방사선과장 취임. 051-867-5101(교환 8784)

金晶坤=진운종합건설(주) 대표 이사 취임. 051-312-0728

梁俊榮=대경생약(주) 대표이사. 054-832-3262

權五成=환경상품소비촉진 부산지부 지부장. 051-751-0956

李昌勳=서울보증보험(주) 영남본부장. 051-466-7721

徐一均=대경공인중개사업소 전무. 051-556-1700

卞相淳=현역 선장으로 활약. 레이 이오, 커피, 아이스크림 전문점 개업. 하단 동아대 입구. 051-202-2575

裴明哲=조선일보 사회부 영남취재본부장

朴振國=밀양 한솔병원 병원장. 055-627-5522

姜京完=로베르토 코포레이션 대표. 부산 서구 동대신동 1가 392-1 익수빌딩 2층. 051-256-7323.

(자택)부산 서구 부용동 1가 12-3 청산맨션 701호. 051-246-8420. 011-9233-8420. E-mail : peterandjohn@hanmail.net

제 29 회

趙漢旭=대전고검 검사

全永祥=만덕복음병원 장례식장 개업. 051-365-1024, 011-9218-1024

朴哲煥=박철환소아과 이전 개업. 당감동. 051-895-7744

朴光宇=현대중공업 중장비사업부 부산지사장. 051-442-3446. 011-9337-8045. (자택이사)부산 동래구 사직동 삼정그린코아아파트 103동 2104호

姜英洙=1월 25일 모친 별세. (주) 세계로여행사 대표. 051-461-0100. 011-599-0643

최경보=2월 4일 부친 별세. (주) 일광상사 대표이사. 051-245-4695. 011-801-9985

全璗和=3월 15일 모친 별세. 한겨레 치과 의원장. 051-610-1444. 019-507-0799

河萬燁=3월 21일 모친 별세. 031-266-5998, 011-345-7564

盧東旭=백 양중 학교. 051-336-9655. 018-593-7855. (자택)부산 금정구 장전 1동 271-14 (9/2). 051-513-7854

金正浩=부산가톨릭대학 신학대학 교수. 신부. 051-519-0430. 011-9525-5479. 부산 금정구 부곡 3동 8-12

許宗行=미래공인중개사. 051-341-6997. 016-9308-9267

崔泰震=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성기린아파트 102동 709호. 051-864-5783, 017-551-5783

崔鍾洙=고리 원자력. 051-726-2230. 011-9666-6301. 부산 해운대구 중동 경동메르빌 104동 1503호. 051-731-4232

李淳元=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033-735-4909

孫在瓊=삼신 한의원. 051-552-8275. 011-9324-8275

蘇德洙=부산 동구 수정2동 804-31. 051-462-0809. 016-872-0886

徐錫哲=무진한의원. 051-207-1558. 051-207-0956. 부산 사하구 감천1동 635 한영주택 B동 306호

裴現鎬=배현호내과의원. 051-328-0075. 011-572-7901. 부산 사하구 다대동 자유아파트 112동 101호. 051-266-2558

方仁粲=가락치과. 051-206-2878. 018-571-4175

朴性哲=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055-266-2230

金根德=사상구청 건축과. 051-310-4623. 011-887-5127

權晤永=효성병원장. 051-751-7337. 011-553-1940

朴秉律=박병률의원. 051-868-7772. 011-586-7582

朴英奇=정근안과. 051-668-8000. 016-895-5975. (자택)부산 사하구 괴정3동 동원화인아파트 104동 803호

安東旭=양정주유소. 051-862-7060. 011-564-7050. (자택)부산 부산진구 당감3동 동원타워아파트 101동 708호

李忠源=동기회 총무. 011-9541-5509. (주)라이프 전무이사. 055-323-3273. 팩스 055-323-3289. 랑데뷰 대표. 051-505-4466

제 30 회

金昌根=하나은행 광안동지점. 4월 7일 장인 별세

제 34 회

魯東表=인천지검 공판송무부장. 032-860-4000

丁玄郁=푸르덴셜생명보험 지점장 취임

李相道=코끼리내과 개원

柳世浩=본부 부회장. 영남석유 대표. 011-9139-0323. (자택)부산 해운대구 좌동 영남아파트 105동 102호

梁哲容=본부 이사. 동남아종합서비스. 017-722-3235. 부산 해운대구 우2동 1104-1 삼호가든 9동 1006호

李愛衡=본부이사. 미진C&C 대표.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남리 542-3. 019-509-1459

제 37 회

鄭仁昌=대전지검 공안부장. 042-470-4306

제 28회동기회 임원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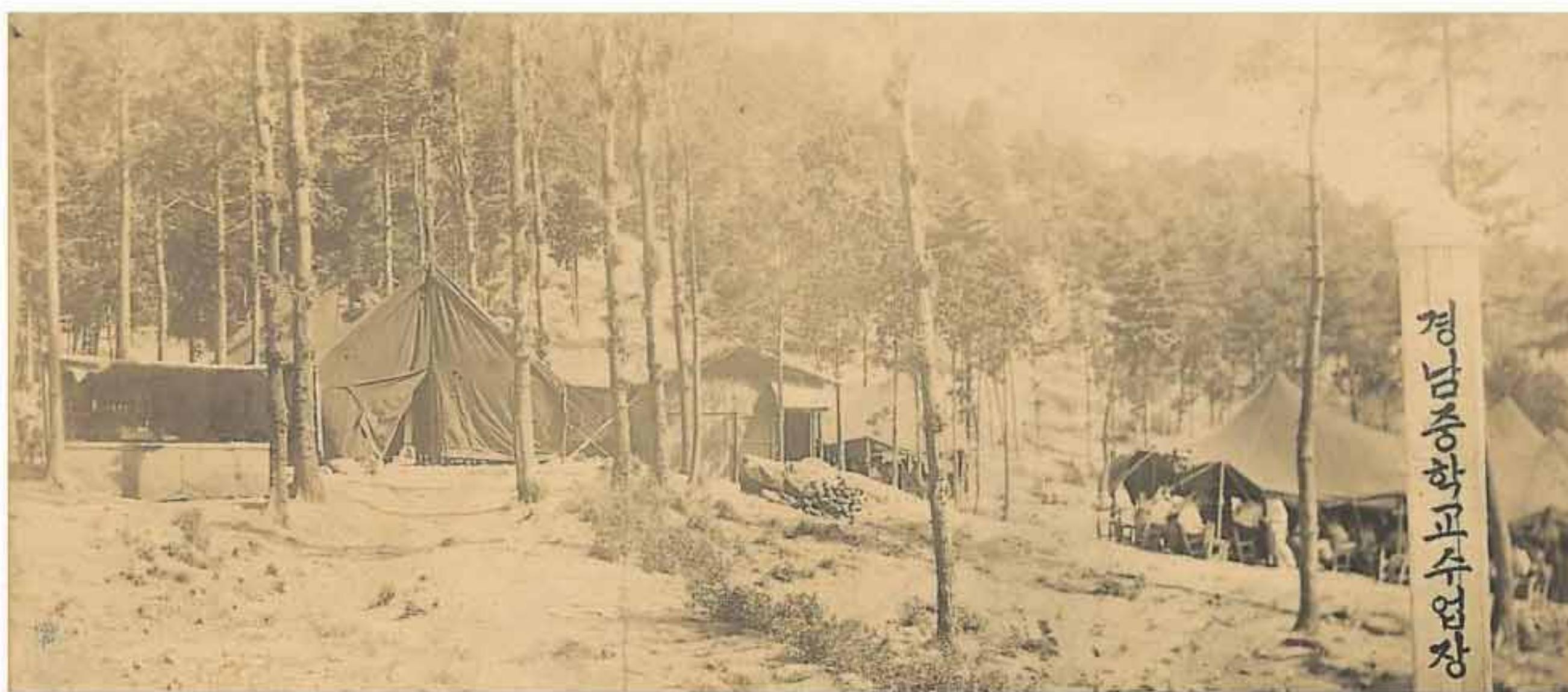
고 문

김용원 김명영 서영대 엄호성 이만수
조광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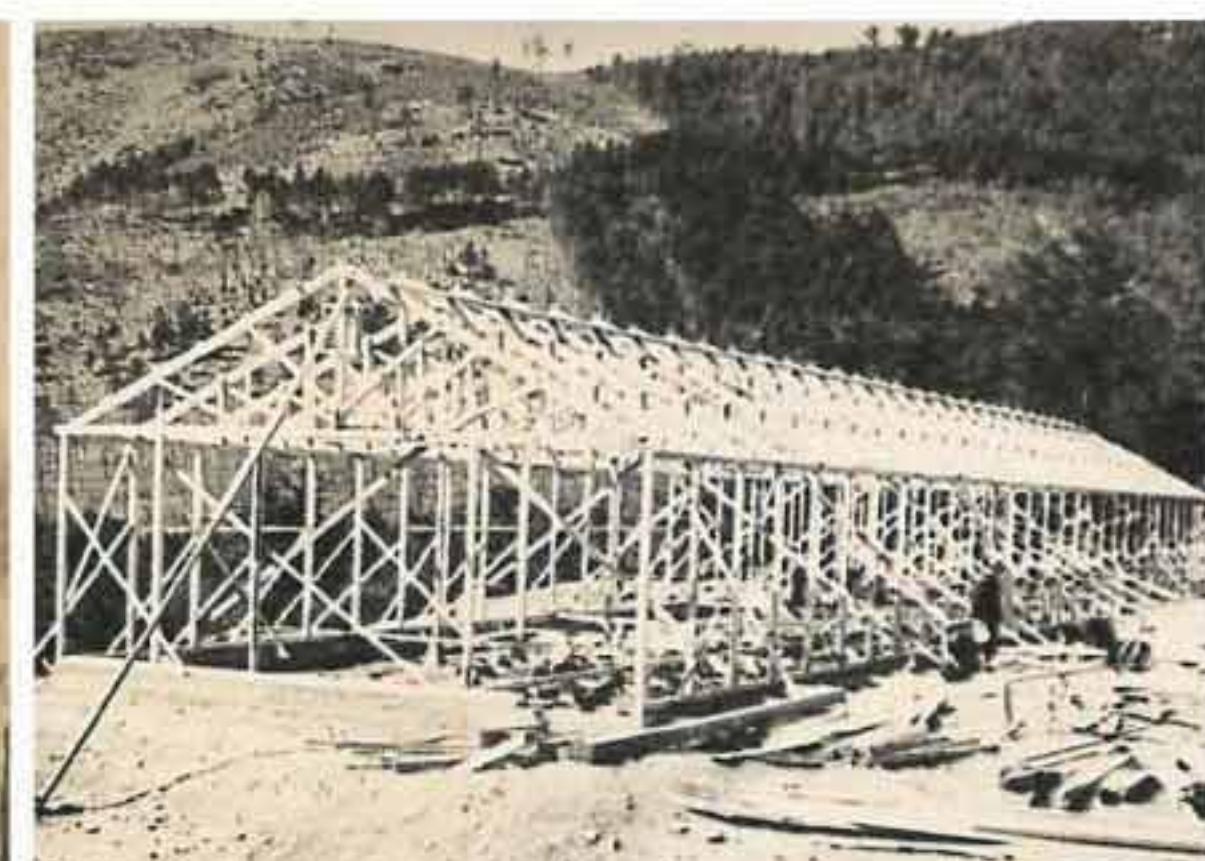
회장 이원철

수석부회장 강용수

부회장



경남중학교수업장



구덕산 기슭에 세워지고 있는 부산제일고 교사 골조 공사.



학도호국단 특별사업 대회 중 실시한 '눈 가리고 소총 분해하기' 경기에서 차재웅 동문(6회, 허리 굽힌 학생)이 전국 신기록을 세워 모교가 우승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사진 3장 6회 청세용 동문제 공).

구덕산 '천막교실수업' 사진발굴

'모교60년사편찬위원회'에 귀중한 자료들 속속 제공

교내 특별활동 내력 기록물
'경고학보' 9호 여행특집
재경 역대 명부 등
한일 고교야구 원정 자료

본부동창회(회장 박동열·8회)
모교60년사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자료 발굴·수집작업이 국내외 용마가족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퍼치를 올리고 있다.

최근 편찬위에 따르면 구덕산 기슭 천막교실과 호국단 사열대회 등 갖가지 색바랜 사진들, 학창시절 특별활동 관련 기록, 역대 본부·재경 회원 명부, 경고 야사, 경남고 야구부의 한일교환경기 일본 원정시 관련사진, 기념품 등 수많은 귀중한 자료들이 입수됐다.

천막교실 등 사진들은 정세용

동문(6회)이 제공했다. 관련 사진들은 1950년 한국동란 여파로 부산 토성동에 있던 모교(경남중)가 국군병원으로 징발됨에 따라 학교를 구덕산 기슭(수원지 근처)으로 옮겨 천막교실 신세를 지고 있을 때 촬영했던 것. 그리고 정동문은 이 사진들과 함께 경남고의 전신인 '부산제일고' 교사 신축 공사, 학도호국단 사열대회 등 사진들도 보내왔다.

박홍기 동문(4회)은 해방전후 모교 교사 이전, 동맹휴학 파장, 학생회 탄생, 예술제전 등 내용들을 A4용지 20여 쪽에 기록한 것과 책자로 만들어진 6.25전쟁일기 등을 보내왔다.

김경희 재경고문(9회)은 본부동창회와 재경동창회가 각각 발간한 역대 총명부, 경고 야사, 기록물, 모교관련 사진 등을 제공했다.

김선동 동문(10회·부산시교육 위원)은 <경고학보> 통권 9호 '수학여행 특집' 등을 제공했다.

황성동 동문(24회·전 경야회장)은 재학시절 야구선수로 활약할 때의 각종 기념품을 비롯, 교복 단추, 한일교환경기를 위해 한국대표로 선발돼 일본에 가서 경기하던 관련 사진들(경고 8명·부고4명·부상 2명 등·인솔단장 당

한국전쟁으로 구덕산 기슭에 천막교실 신세를 진 경남중 수업장. 1950년 피난시절 토성동 경남중 교사가 군에 징발돼 국군병원으로 쓰이게 되자 수업장을 구덕산 기슭 수원지 골짜기로 옮겨야 했다.

시 박경원 교장-지난 4월8일 타 회, 고시엔야구장 견학 및 경기 계·감독 어우홍·부장 이길상-6 관전 관련 사진들을 보내왔다.

동기회 사랑방 무료로 선뜻 제공

제11회 김병기 고문용단… 신임회장 이명 선임



제11회동기회는 지난 3월22일 정오 부산 금정구 선동 오륜대 근교 진성농원(김병기 동문 상황버섯 농장)에서 2003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이명 수석부회장(사진 오른쪽)을 선출했다.

김병기 회장(왼쪽)의 주재로 열린 이날 총회는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고 김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신임 이명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동기회도 격변하는 시대상황에 따라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조직활성화와 동문 간·가족 간 유대강화에 더 한층 열정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무실 이전문제에 대해 김병기 고문과 이명 신임회장이 협의한 결과 평소 남다른 동기애를 발휘하고 있는 김 고문이 자신의 사무실인 부산 동구 초량1동 1213-12 윤천빌딩 401호를 '제11회동기회 사무실(051-463-9811)'로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7일 이곳으로 동기회 사무실을 이전, 축하회를 열었다.

새 사무실서
축하회

윤천빌딩
401호 회사

"용마가족 발전 위해 최선의 노력"

정영석(24회) 신임 부산시청 용마회장 다짐



부산광역시청 용마회는 지난 2월18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교육대 앞 한식전문점 수라정에서 2003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정영석 동문(24회·부산시 환경국장·사진)을 선임했다.

양용길 회장(18회)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사업 및 결산보고 예산

안을 심의, 의결했고 임원을 개선했다.

정영석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시청 내 용마가족의 화합과 결속,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양용길 회장은 부산시 청소과장 직에서 명예퇴임한 후 지난 1월 부산시환경시설공단 상임이사로 선임됐다.

제11회동기회 임원명단

고문

김성호 양호준 안강태
최창옥 윤재석 서근조
곽정출 오완수 김병기
유홍수

회장

이명

부회장

김달경 김동기 김중하

박종술 신대수 신윤업
양웅석 염한호 천금준
최형욱 현정춘 홍기환

이사

감금찬 강문상 강용대
김동식 김수곤 김용정
김인섭 김재택 김재환
김학수 김항곤 남호현
노영일 박병조 박수경
박옥식 박승우 반태주

배일규 심재룡 안종인
오길훈 이상철 이상태
이상훈 이재진 장영권
정광웅 정운표 정주식
조양현 천동조 최득호
최영수 하용무 한영규

감사

김효민
김원형

직능회장

쌍술회 김병기
금산회 염한호
쌍석회 신대수
쌍일회 한영규
용란회 이정기
교직원회 박종술
총무회 최득호

지역회장

중·동·영도구 강용대

진·북·사상구 이상훈
동래·금정구 최영수
서구 김동식
남구 오길훈
사하구 한영규
연제구 강점석
수영구 신윤업
해운대구 최득호
시외지역 이상태